

군전법단 발족... 병원 경찰 이어 세 번째

160여 지도법사 스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부루나존자 되겠다 발원

한국 불교 미래를 환히 밝혀 줄 군포교를 전담할 기구가 출범했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혜총)은 7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군전법단 지도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위촉식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포교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진력을 다해 활동 중이다. 오늘 군전법단 출범을 계기로 군장병 포교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법단 단장 계성 스님(포교부장)은 축사를 통해 "160명의 전법단 지도법사 스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못해낼 것이 없다. 전법 총

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군전법단 지도법사로 위촉된 자영 스님(203특공여단 영평사), 도윤 스님(유도탄사령부 무극사), 효강 스님(과학화훈단 응봉사), 백거 스님(102여단 호국일출사), 덕현 스님(5기갑여단 호국철갑사), 대해 스님(30사단·92여단 호국쌍룡사), 지일 스님(1기갑여단 기갑호국사), 지건 스님(75사단 호국 철마사), 탄웅 스님(옹주사 포교국장), 지선 스님(내장사 주지) 등은 군포교에 더욱 더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군전법단 지도법사들은 군부대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7월 14일 열린 군전법단 지도법사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등에서 법회, 법문, 교화활동을 펼치게 된다. 군전법단은 포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방위적인 포교역량을 펼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출범한 조계종 전법단의 하부 조직이다. 군

전법단 지도법사들이 체계적으로 군부대 등에서 법회, 법문, 교화활동을 펼침으로써 군 포교 역량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포교원은 전법단 산하에 이날 출범한 군전법단을 비롯해 5월 12일 창립된 병원전법단, 6월 28일 경찰전법단을 설립했다.

포교원은 대학생, 청년 전법단 등 분야별 전법단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 중이다. 또, 분야별 전법단과는 별개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역 사찰 및 단체들과 연계한 전법단 지역 조직 구성도 계획하고 있다.

100자 뉴스

대각사 여래선원 불교명상 강좌 개강



대구 대각사 여래선원(선원장 법산)은 7월 3일 불교명상 강좌를 개강했다(사진).

대각사에서 개강한 불교명상 강좌는 불교명상 체험코스과 불교명상 지도자 코스로 나눠 매주 금요일 기초교

리, 경전강좌, 위빠사나, 사띠요가, 108성지 순례 등이다.

선원장 법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목수가 목축에 의해 틈집하듯 부처님을 의지해 무아의 '공' 자리를 체험해 선의 에너지를 창조 발전시켜 나아가자"고 말했다.

순법선 대구지사장

봉선사 24~25일 봉선사 연꽃축제

남양주 봉선사(주지 인묵)는 7월 24~25일 경내 승과평 특설무대에서 '화중생면'을 주제로 제8회 남양주시·봉선사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24일 오후 7시 개막식과 한여름밤의 산사음악회에 이어 25일 오후 2시 연꽃가요제 등이 열린다.

이와 함께 행사장 인근 연꽃유치원 잔디공원에서는 방문객을 위한 무료 차 시음회가 상설운영된다. 부채를 이용한 단청채색 체험장과 페이스 페인팅, 만다라 그리기 체험, 천연 허브를 이용한 비누, 모기퇴치 방충제 만들기 체험 등이 펼쳐지며 연꽃사진전도 열린다.

조동섭 기자

은정불교문화진흥원 학술상·장학금 대상 선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이하 진흥원은 불교계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불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재들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은정학술상 및 은정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선발한다.

선정 분야는 △은정학술상 △학술연구인력 장학금 △불교단체장학금 등 3개 분야이다. 신청은 8월 14일까지. (02)515-9351 이나은 기자

문화재지킴이청년연대 조선왕실의궤 환수운동

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지킴이청년연대(단장 이재권)는 7월 21~23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본 공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의 환수운동을 펼친다.

동국대, 고려대, 용인대 등 대학생 8명과 월정사 법사 스님, 봉선사 해문 스님, 이상근 중앙신도회 사무총장 등 12명이 참가한 이번 방문단은 일본 공내청 및 총리관저를 방문해 촉구집회를 여는 한편 국회의원·사회단체 인사 면담, 언론 인터뷰 등 일본 내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지킴이청년연대는 '우리 문화재를 바로 알고 바로 지키자'는 취지로 2009년 창립했으며 현재 13개 대학에서 20명의 대학생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733-7277 노덕현 기자

생활불교조계종 올진서 2010 주지 연수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도선)은 7월 1~3일 백암화랑호텔에서 '2010 주지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전국 총도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 암도 스님을 비롯한 강사 스님들은 <금강경>, 생활불교의 실천, 수맥과 포교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054)682-5808 조동섭 기자

석학강좌-불교와 음악 토론회

"불교음악, 대중에 귀기울여야"

불교문화정보연구원(원장 진철승)은 7월 13일 서울 토크플레이팅 센터에서 '석학강좌 시리즈-불교와음악'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불교와음악 강좌의 마무리 행사로 마련된 이날 종합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강사들이 토론자로 나서 불교음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회에 앞서 남양주 봉선사 주지 인묵 스님(불교어산작법학교 교장)의 법패 강연 및 시연이 진행됐다. 인묵 스님은 이날 법패를 직접 시연하며 전통과 현대 불교음악의 조화를 강조했다.

인묵 스님은 "역불승유의 조선시대 불교가 맥을 이은 것은 유교가 하지 못한 사후 세계에 대한 민중의 요구를 해소했기 때문"이라며 "불교음악도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현대화로 대중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모든 음악이 그렇듯이 법패도 목소리가 굳기 전에 익혀야 한다. 현재 각 종단의 출가연령이 높아지는 만큼 그나마 동진출가가 많은 조

계종이 법패의 맥이 끊기지 않게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반영규 불교음악협회 회장은 "최근 열린 음악회 등을 보면 가요와 가곡이 함께 어우러져 청중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대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불교음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규백 작곡가는 "불교음악 창작에 앞서 우리 전통과 불교를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여러 음악요소를 이용해 새로운 불교음악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작곡가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법패도 악보 등을 만들어 아만 스님들과 음악가들이 활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승용 불교문화정보연구원 이사장은 "법패라는 기본 바탕 하에 대중성을 모색하는 취지를 지닌 이번 불교음악 강좌가 명확한 해답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불교음악계의 분명한 방향이 설정된 것 같다"며 토론회를 끝맺었다. (02)742-4288 노덕현 기자



한마음선원 연등축제 정진상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7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10년 등축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한마음선원 법행제회(주지 혜원)를 비롯한 6개 단체에 정진상을, 영화사 연화단 외 8개 단체에 보현상, 몽골 아미르암갈당 포교당 외 5개 단체에 원력상이 시상됐다. 또한 비로자나국제선원 자우 스님, 한마음선원 청년회 기획팀장 이준호 씨 외 13명에 대한 표창패를 시상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한마음선원 법행제회 박종수 신도회장에게 정진상을 시상하는 모습. 글=이은정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신흥사 우승·월정사 준우승 조계종 포교원장배 축구대회 성황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7월 10일 충북보은공설운동장에서 제2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축구를 통한 각 지역 및 단체 포교활동가의 친목 도모와 교구분사들 중심의 한 지역포교역량 결집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분사 포교국장협의회가 주관한 축구대회에는 포교원장 혜총 스님,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을 비롯한 교구분사 주지스님들과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띤 경기가 펼쳐졌다.

포교원장의 인사말씀, 보은군수의 환영인사와 체육인 불자회 부회장의 축사 순으로 개막식이 진행되었고 이어 대회에 참가한 법주사, 월정사, 화엄사, 응주사, 직할교구, 동화사, 수덕사, 신흥사 등 8개 교구분사가 토너먼트 예선경기를 가졌다.

이날 축구는 속초 신흥사가 우승했고, 준우승은 평창 월정사가 차지했다. 축구는 대구 동화사가 우승을, 예선 수덕사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혜철 총청지사장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산하 국제 선불교 조계종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여기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준비 되셨죠?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세요.

- 사찰 등록
- 주지 임명
- 승려증 발급
- 행자 (예비 비구, 비구니 스님) 모집

어렵고 복잡한 것 싫습니다. 그저 종단의 보호만 받고 부처님 재산인 내 사찰 내 재산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자들에게 종단에서 추진하는 중생 교화, 인간방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개인 사찰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종단 법으로 일체 간여하지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의 불사나 행사에는 이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같은 도반이요 부처님 제자요 가족이기에 풀잎이 정신으로 서로서로 도우며 아무리 조그마한 사찰이라도 원만하고 자랑스럽게 행사를 봉행하도록 협조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미얀마 문화원
미얀마 연방정부 우 난 위인 외무부 장관 내방 목탁스님께 빈민가 우물 파주기 성과에 감사의 뜻 전해



미얀마 연방정부 우 난 위인 외무부 장관이 종로구 청진동 소재 미얀마 문화원(원장 목탁)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목탁 스님에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문화원을 이끌고 미얀마를 위해 실질적인 봉사운동을 진행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우 난 위인 장관은 목탁 스님께 "앞으로 미얀마를 바르게 알리는 한국의 교두보가 되기를 희망 하며 어떠한 지원도 함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양국 관계가 더 큰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글을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앞서 국제불교지도자협회는 빈민가 우물파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미얀마 양곤 빈민가 지역 중 식수의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 마을에 5기의 우물을 파주는 행사를 진행하여 현지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도자 협회는 한 번에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30여기의 우물 파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얀마 연방정부가 공식인정한 미얀마 문화원은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를 바르게 알리고 교류할 수 있는 어떠한 단체나 스님, 재가 불자들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립니다.

중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산하종단 국제 선불교 조계종 / 총무원 : 02)733-5670, 733-5665 / 팩스 : 02)733-5671